

# 北 로켓발사 강행

## 美 냉각기 후 협상 시도할 듯... 北 반응 관건

### 기रो에 선 한반도 정체

한반도 정세가 다시 중대 기로에 섰다. 국제사회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국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그들은 인공위성이라고 극구 주장했지만 장거리 로켓이 내포하는 정치적 함의는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더 크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로켓 발사체의 끝에 무엇을 장착하는 지에 따라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국제해사기구(IMO)에 로켓 나하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좌표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650~3천600km 떨어진 동해상과 태평양 해상을 지정한 것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충분히 느끼게 한다.

미국을 사거리에 둘 수 있는 장거리 로켓(미사일)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이를 운반(delivery)할 미사일 체계를 갖춰준을 과시하는 극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때

### 보즈워스 “압박보다는 유인책 병행해야” 北, 유엔제재 반발·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의 존재를 새로 출범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에 알리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분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압박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북한도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지속되는 것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가 한반도 정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이 유엔에서의 논의를 추진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강조한다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3일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로켓 발사가 미사일인 인공위성이라든가 가장 생산적인 접근법은 아니며, 인센티브(유인책)를 결합해야 한다”고 밝히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이 강경일변도로 치닫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그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동안의 냉각기가 불가피하지만 전체 국면은 일단 협상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반대의 경우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재 움직임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전개되고 북한도 추가적인 위협행위를 지속할 때를 상정한 얘기다. 이 경우 2006년의 경우처럼 미사일에 이어 핵실험을 다시할 가능성도 있고 남측을 향한 강경대응조치도 잇따를 수 있다.

다만 지난 16년에 걸친 북한의 지루한 ‘핵전술’에 대해 국제사회의 학습효과가 확산된데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이런 상황에서 영항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의 존재 등이 겹칠 경우 북한이 과거와 같은 화려한 위협전술을 계속 구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선택의 방향에 따라 한반도 정체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정가 라운지

#### 정찬용 前 수석 사무실 개소

○“정찬용(사진)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광주에 사랑방 형태의 사무실을 열어 본격적인 정치행보 여부를 놓고 눈길 모아졌다.



정 전 수석은 김종남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총장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최근 ‘무등사랑(無等舍廊)’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사무실을 마련,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조영택·김재균 국회의원과 강신석 목사,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 전 수석의 배턴을 이어받았던 김관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전 수석은 무등사랑의 핵심 사업인 ‘(사)인재육성아카데미’의 이사장을 맡아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전력할 계획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 전 수석이 사무실 개소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출마를 위한 정치 행보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수석은 “지금의 선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지역 인재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출마를 일단 부인했으나 “지방선거가 1년도 더 넘게 남았다”고 거론, 여운을 남겼다.

#### “조만간 민주당 신청”

○“무소속 전갑길(사진) 광주 광산구청장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민주당 복당 신청을 계기로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위한 밑바닥 다지기 수순에 들어간다.



전 청장은 5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과 주변에서 ‘이제 복당해 민주당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 지도부와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복당신청서를 내겠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에는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버려진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옛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전 청장과 함께 탈당했던 광산구의회 박석원 의장 등 구의원 4명에 대한 복당을 받아들였다. /박정욱기자 jwpark@

### 세계 주요 국가 반응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체 당부에도 불구하고,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세계 각국은 놀라움과 함께 큰 우려를 표했다. 6자회담 참여국인 미·중·일·러 등 주변 4국은 도발적으로 취해진 북한의 이번 발사 조치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강도높은 대북 제재 강화 추진에는 온도차이를 드러냈다.

○美 “도발행위 규정안보리 제재 논의”= 미국 정부는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곧바로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며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후속 대응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로켓 발사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발사에 사용된 기술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그 심각성에 주목했다.

○中, 위성 예상한 듯 제재 미온적= 중국은 북한이 이번에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이를 사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할 필요가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외교부의 로켓발사 후 발매된 논평 발표와 차분한 대응은 북한의 이번 발사 조치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한 대처라는 인상

을 짚게 보였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발사 일정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日, 강력대응 여론속 대북제재 추진= 일본 정부는 로켓 발사 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한 항의 의사를 표하는 한편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아소 다로 총리는 로켓 발사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것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 확실한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러 “안보리 위반 여부 검토중”= 러시아는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동북아 갈등을 기울 수 있는 각국의 선분대응 자세를 촉구했다.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러시아가 북한에 상당한 유감 표시 정도 이상의 대응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U 등, 동북아 긴장고조 일제 우려= 유럽연합(EU)의 순회의장국인 체코는 “핵문제 해결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또 다른 부담이 드리운 것”이라며 북한의 즉각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 및 핵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 美·日·EU “강도높은 제재” 中·러 “강경 자제를”



5일 일본 도쿄 쇼핑가 길에서 행인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긴급 보도한 호의를 받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후주의 케빈 라드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즉각적인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할 계획 및 핵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후주의 케빈 라드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즉각적인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할 계획 및 핵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 丁-鄭 전주 공천 담판 불발

### 北 로켓발사로 무산...파국 위기 고조

중진그룹의 중재 실패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29 재보선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세균 대표와 정 전 장관의 막판 담판을 위한 백양사 회담마저 불발되면서 파국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 대표는 5일 원혜영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김민석 최고위원과 아침 일찍부터 전주에 가서 정 전 장관과 오후 1시 정세균 백양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백양사로 가는 도중에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을 듣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급거 귀경하면서 회동이 불발됐다.

애초 민주당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너무도 안강해 막판 회동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회동 약속을 잡기 전에 “진정성을 갖고 당을 위한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 측은 “불출마 권유를 위

한 것이라면 공천 배제 명분쌓기일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이 만나지도 못하면서 양 측은 이제 막판에 풀리게 됐다.

정 대표 측은 여전히 정 전 장관에게 공천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 전 장관은 무소속 출마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당 지도부가 늦어도 오는 8일까지는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물론 마지막 의견 절충의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 등을 통한 수도 있고, 정 대표가 한밤 중 전주를 다시 찾을 수도 있어 실낱같은 막판 회동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결국 정 대표가 공천을 줄지, 정 전 장관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지는 누가 민주당을 아끼는지를 알게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에당심을 가진 인사가 자신의 희생하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나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수시접수중 (종합 및 문제풀이)**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순경공채	특채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인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 전의경 특채 240명 • 경찰 행정학과 특채 100명 • 경찰 특공대 특채 38명

※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경 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226-5050

**= 48년의 전통! 오랜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

**7.9급 공무원 전직력**

음적문제풀이 4주 해교세관검법검마철교보보관복소기 합후 소방인력 8395명 지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인원 {국가직 7급 2320명, 7급 6000명 공채  
• 시험일: 지방직 9월 5일 23일, 7급 9월 28일, 시행  
지방직 9월 5일 23일, 7급 9월 28일, 시행

**개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법, 형소법, 교정학, 헌법, 복지학, 민사법, 소방법, 모험학, 상식, 기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국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100% 합격 보장!

**계좌제/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

**가족사랑 간호전문학원 입학안내**

주간반/야간반

-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남·여
-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이상인자
- \* 병·의원 종사자중 자격증이 없는 자
- \* 주부, 직장인, 대학생, 군의무병 지원 예정자
- \* 교육기간 : 12개월 (이론 8개월, 실습 4개월)
- \* 교육시간 : 주간반 ▶ 오전 9시 10분 ~ 야간반 ▶ 오후 6시 30분 ~

**가족사랑 간호전문학원 특별혜택**

- \* 자격이수 후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시 할인
- \* 웃음치로사, 병원코디네이터 특별강좌
- \* 단체 수강시 할인(10인 이상)/졸업예정자 할인
- \* 1년간 학원비 완납시 10% 할인
-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국비지원
- \* 실업자 국비지원 (계좌제)
- \* 직업능력개발카드 (고용보험 퇴직자)

**구비서류**

- \* 입학원서 1부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증명사진 4매
- \* 고3 재학생증명서 1통

**접수방법**

- \* 방문접수
- \* 인터넷 접수

영광동 사거리, 광산구청 옆 30m, 송정리 지하철 출구

버스노선 : 29, 39, 97, 98, 99, 290, 마을버스 750, 나주 160

**가족사랑 간호전문학원** www.silverlove.co.kr

945-7125~7